

면역상태가 정상인 환자에게 발생한 침습적 aspergillosis 1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최유경 · 김명수 · 김영근 · 신소연 · 박윤선 · 최준용 · 김준명 · 송영구

면역상태가 정상인 환자에게 발생한 침습적 aspergillosis 1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최유경, 김명수, 김영근, 신소연, 박윤선, 최준용, 김준명, 송영구 최근에 혈액종양을 포함한 악성 종양의 치료로 항암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장기 이식의 발달로 면역억제제의 사용과 스테로이드의 사용이 증가하여 면역이 저하된 환자에서 침습적 aspergillosis 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침습적 aspergillosis는 폐에 흔하게 침범하며 폐 외 장기도 침범 가능하나 뼈의 감염은 흔하지 않다. 침습적 aspergillosis의 치료는 최근까지 주로 amphotericin B가 사용되었으나 많은 부작용이 있고 뼈의 조직 투과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Voriconazole은 침습적 aspergillosis 의 1차 약제 또는 대체 약물로 사용되고 있는데 신독성 등의 부작용이 적고 뼈의 투과력이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환자는 65세 남자로 과거력상 5년전 폐암 1기 진단 후 완전 관해 진단 받은 분으로 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위궤양 치료를 위해 입원 중 좌측 근력 약화를 호소하여 시행한 척추 자기 공명 촬영상 요추 3/4 위치에 종양 소견 보여 생검과 후방 요추체간 고정술을 시행하였다. 척추 생검상 Aspergillus 균사 소견 보여 Amphotericin B 를 총 280mg 투여하였으나 급성 신부전과 오심, 구토 등의 부작용 호소하여 voriconazole로 약물 교체하여 사용하였다. 매일 voriconazole 400mg을 17주간 사용 후 좌측 근력 약화 증세가 호전되고 척추 컴퓨터 단층 촬영상 정상 소견을 보였다. 저자들은 면역이 정상인 환자에서 뼈의 침습적 aspergillosis를 voriconazole로 치료한 1예를 경험하고 국내에 아직 보고된 예가 없는 드문 예로 생각되어 보고하는 바이다.



Scedosporium apiospermum에 의한 피부진균증 1예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정용근 · 박진용 · 김현옥 · 이상일 · 배인규

Scedosporium apiospermum은 Pseudallescheria boydii의 무성생식세대로 토양, 오수, 및 부패한 식물 등에 존재하며 정상인과 면역저하 환자 모두에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면역저하환자에서는 피부 및 연부조직의 화농성 농양과 육아종, 중추신경계 농양, 뇌막염, 폐농양, 폐렴, 그리고 심내막염 등을 일으키며 정상인에서는 주로 외상 이후에 발생하는 피부, 연부조직 감염증을 일으킨다. 저자들은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78세 여자 환자에서 발생한 Scedosporium apiospermum 에 의한 피부진균증 1예를 경험하였기에 드문 증례로 생각되어 보고하고자 한다. 78세 여자 환자가 내원 3일전부터 발생한 오른쪽 전완과 손등에 열감을 동반한 농포와 결절 및 다발성 삼출성 궤양으로 내원 하였다. 환자는 평소 관절염으로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해 왔다. 내원 2주전에 요추 염좌로 타 병원에서 치료 받았으며 내원 3일전부터 당시 타병원에서 시술된 정맥 주사 삽입 부위의 부종과 피부병변이 나타나 본원에 내원 하였다. 초기치료로 죽은조직절제술과 경험적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이후 농배양 검사에서 Scedosporium apiospermum이 배양되어 경구 itraconazole로 변경 투여하였고 피부병변의 현저한 호전을 보였다. 2개월 후 동일부위의 재발 소견을 보여 itraconazole 내성 균주로 판단하여 voriconazole을 투여하며 관찰 중이다.